

2026/09/07

[경제/환율]

위재현 선임연구원

Jhwee11@iprovest.com

8월 미국 고용: 질적 개선이 동반된 헤드라인 강세

비농업 신규 고용 +16.2만 증가,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보합

미국의 8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6.2만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5.5만)를 크게 상회했다. 게다가 직전 2개월 고용은 7월 +4.4만명, 6월 +1.1만명이 상향 조정되며 지난 7월의 -2.3만명 마이너스 쇼크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 업종별로 보면 여가&숙박업(+6.2만)과 교육 및 헬스케어(+2.9만), 정부(+3.5만)가 전반적인 고용 증가를 견인했는데, 통계적 재조정 영향이 있지만 소수 업종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몇 개월간 실업률의 하향 안정은 노동인구 감소에 기인했는데, 이번 8월에는 노동인구의 큰 폭 증가가 동반되며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관찰됐다.

통계적 되돌림 효과 있지만 질적 개선도 동반, AI의 고용시장 영향은 아직 중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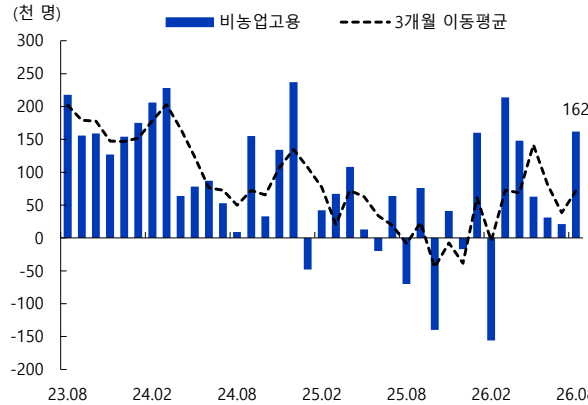
이번 8월의 고용지표 강세는 지난 7월 고용 감소의 되돌림 성격이 다소 존재한다. 지난달 쇼크가 발생했던 지방정부 교육에서 통계 재조정이 발생하며 이달 +4.4만 명으로 반등했고, 월드컵 효과에도 불구하고 6-7월 고용 증가가 부진했던 여가 및 숙박업에서도 계절조정 효과에 힘입어 +6.2만명 증가했다. 다만 단순히 통계적 조정 효과보다 전반적인 질적 개선도 뒷받침됐다. 교육 및 헬스케어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고용 증가가 이달 들어 제조업(+1.6만)과 건설업(+2.2만)으로 확산되며 전반적인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됐다(도표3).

한편 AI로 인해 고용시장이 영향 받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IT(-2.3만)과 금융업(-1.1만)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이뤄졌고, 청년층에 해당하는 16-19세의 실업률이 다시 14.1%로 반등하며 노동시장 신규 진입의 장벽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동시에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로 인해 비주거용 건설 부문에서 고용 증가가 이뤄지며 산업간 대체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AI로 인해 산업별 고용 수요와 공급이 재편되는 흐름이 보이지만, 아직 실업률이나 신규 고용 헤드라인 전반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조사 내용도 긍정적, 다만 구조적 노동수요 지표는 엇갈린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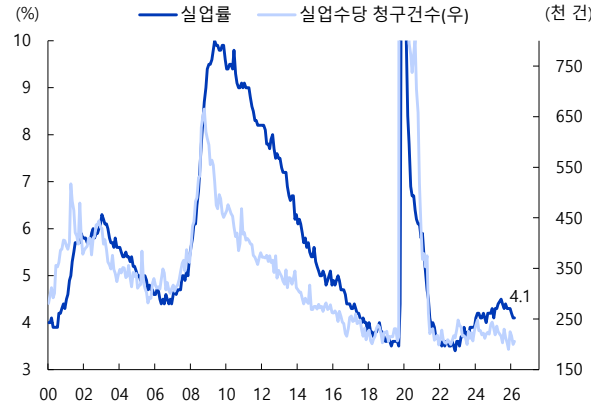
가계조사를 보더라도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다. 실업률이 지난 7월과 동일하게 4.1% 수준으로 안정됐는데, 연초부터 실업률 하락은 사실상 실업자 감소가 아닌 노동인구의 이탈에 기인했다. 반면 8월의 경우 노동인구의 큰 폭 증가(+68.3만)에도 고용자 수가 동반 증가(+56.9만) 하며 다소 건전한 실업률 안정세가 나타났다(도표9). 한편 구조적인 노동시장 수요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 한명당 구인공고 수는 1을 다시 넘으며 초과수요 국면의 재진입을 시사하지만, 반대로 명목임금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도표7). 고용시장이 확장 국면으로 전환 됐다고 보다는 여전히 균형 수준에서 다소 정체된 국면으로 판단된다.

[도표 1] 8월 비농업 고용은 +16.2 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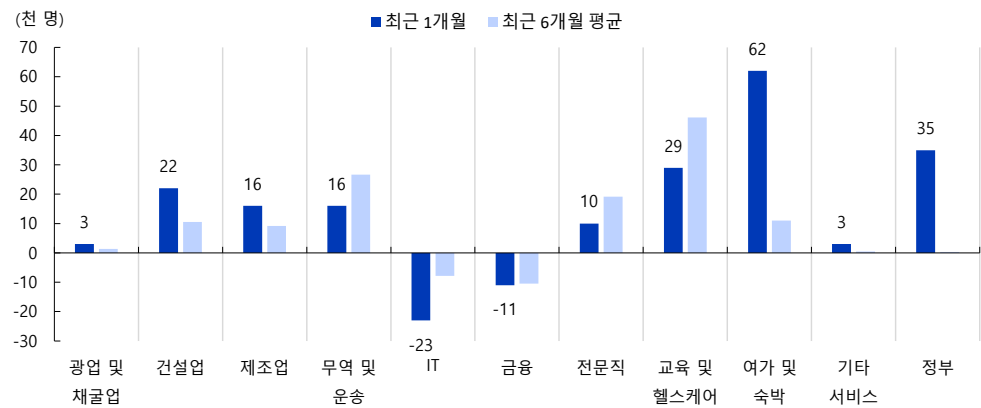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실업률은 4.1%를 유지,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낮은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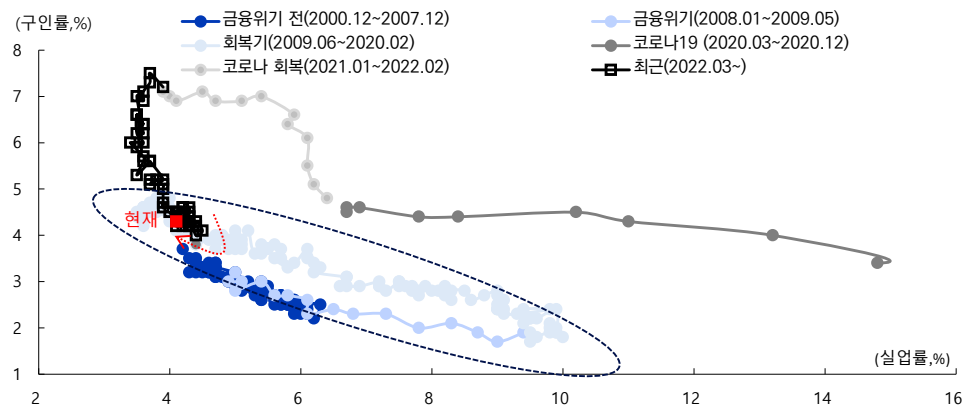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여전히 소수 업종이 고용을 견인 중이나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 고용도 반등하며 편중 현상 완화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실업률이 다시 하향 안정 되며 최근 베버리지 곡선상 위치는 안정 국면으로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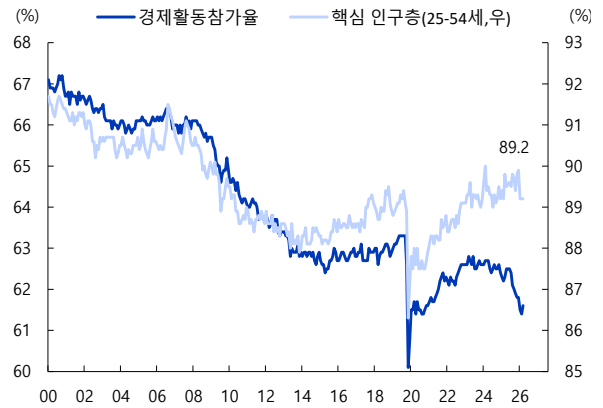
자료: FRB, Dallas Fed,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실업자 1명당 구인공고 수는 아직 1을 상회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경제활동참가율도 전월대비 소폭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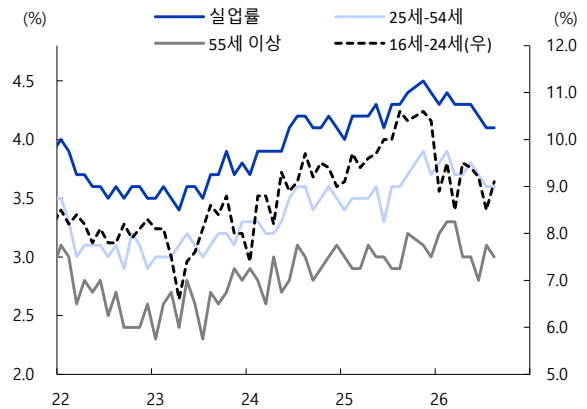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구조적 고용시장 수요 지표는 최근 엇갈린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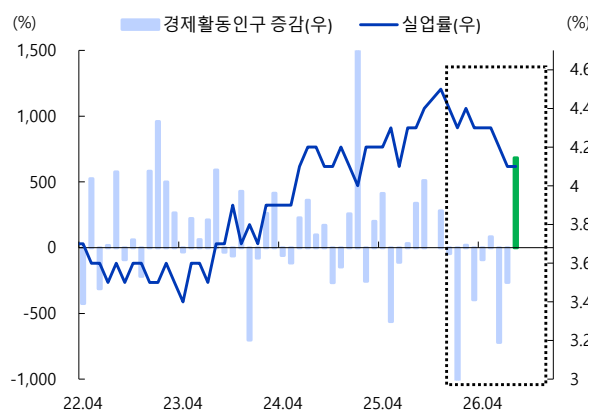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노동시장 신규 진입 연령 실업률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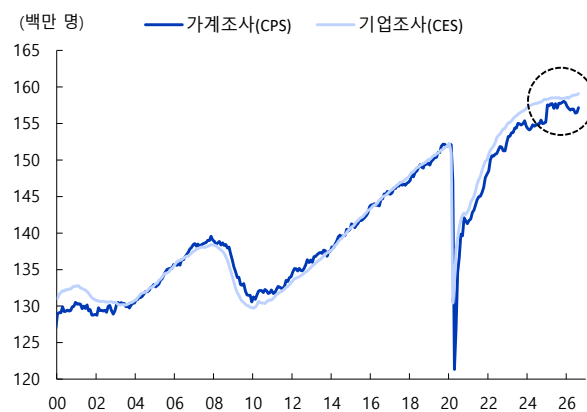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이번 8월 실업률 하락은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동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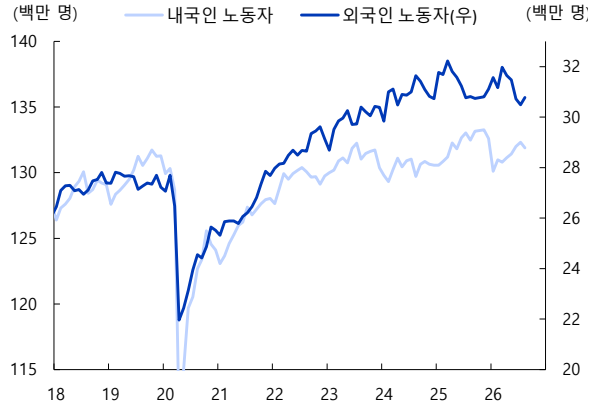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가계조사와 기업조사의 괴리 소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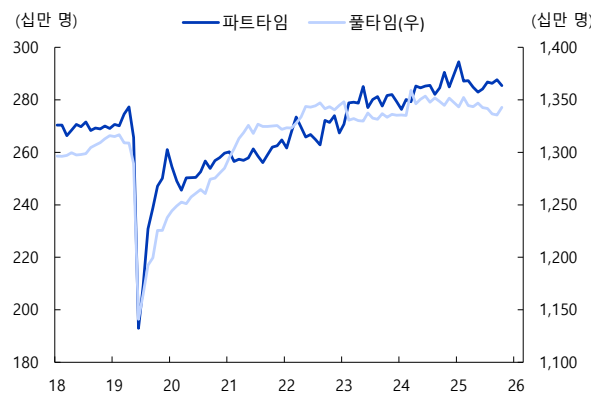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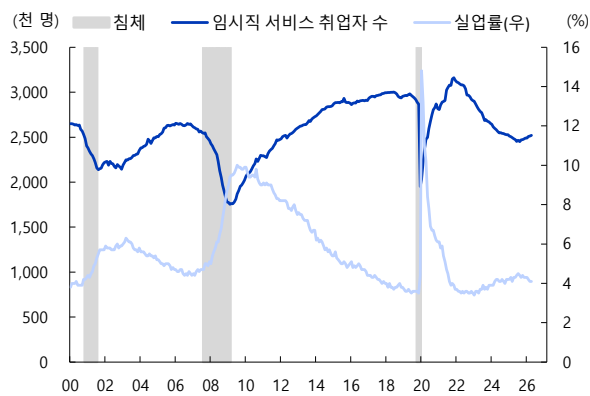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파트타임과 풀타임 노동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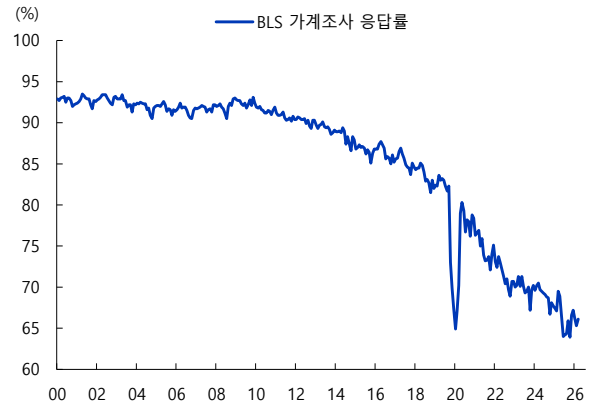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실업률과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BLS 가계조사 응답률 하락세 지속



자료: BL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